

##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양상 분석\*

송 수 지<sup>1)</sup>

남 궁 지 영<sup>2)</sup>

김 정 민<sup>3)</sup>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한국교육개발원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영역별 자아개념 발달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1~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전국 150개 중학교의 6908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의 영역별자아개념 발달양상을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사회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 학업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은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자아개념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발달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사회자아개념의 성장률에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가족자아개념은 중학교 3학년 시점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완만한 성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가족자아개념의 성장률의 차이는 없었다. 셋째, 신체자아개념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신체자아개념이 더 높았으며, 성장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넷째, 학업자아개념은 중학교 3학년 시점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완만한 성장을 하였다. 성별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인 학업자아개념의 성장곡선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주요어 : 자아개념 발달, 사회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 학업자아개념, 성별, 다층성장모형

---

\* 이 논문은 제5회 한국교육종단조사 1~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음.

1) 교신저자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전임강사 (E-mail : animaux@naver.com)

2)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3)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I. 서론

자아개념은 출생 시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 속에서 발달해 가는 것으로 (Shaffer, 2000),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 대한 태도 등을 형성해가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즉,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이나 느낌이며, 인간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은 부모, 교사, 또래 등 중요한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Chubb, Fertman, & Ross, 1997).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아동기보다 사회적 관계가 보다 확대되어 부모 이외에 또래집단이 새로운 준거집단이 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능력이 발달된다(Santrock, 1986).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로서(Harter, 1983), 자아개념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학문적 관심사 중 하나였다(Baldwin & Hoffmann, 2002; Block & Robins, 1993).

Rogenberg(1979)는 청소년기 동안 자아개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청소년 후기에서야 증가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의 혼란기라고 하였다. 이숙정(2010)은 청소년기 자아개념은 또래집단과의 비교, 타인의 반응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자신과 비교할 새로운 준거들이 많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의 특성에 대한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자아개념은 일시적 퇴행현상을 보이며(이사라, 박혜원, 2005; 이진화, 전경숙, 1995; 최정미, 김미란, 2003; Mendelson & White, 1985), 15-16세 전후로 큰 혼돈을 겪다가 이후 청소년기 후기에 접어들며 점차 안정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정익중, 2007;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Robert(1995)는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낮은 자아개념을 보이는 자아개념의 V자형 변화추이를 제시하였다. 정익중(2007)과 홍세희 등(2006)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경우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 처음에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이지만 차츰 자아개념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자아개념의 안정성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한 이종승과 남덕진(2002)도 16세 이후에 자아개념이 안정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전 자아개념이 이후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아개념 하위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연구한 오정숙과 김혜숙(2004)의 연구와 이사라와 오윤진(2008)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시기 가족 자아개념이 다른 자아개념에 비해 가장 높고 신체자아개념이 가장 낮았으며, 성취자아개념이 아동기 때보다 크게 하락한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에 따른 자아개념의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은 아동기나 성인기에 비해 하락하고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 초기와 중기에 부

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이고, 청소년기 후기에 이르러 이를 회복하며 안정된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성차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기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적 매력, 이성교제, 학업성취, 그리고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 등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 여학생의 자아개념이 더 많이 저하된다는 선행연구결과(Simmons & Biyrt, 1987; Simmons & Rosenberg, 1975)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자아개념 영역별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Offer, Ostrove, 그리고 Howard(1981)의 연구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진화와 전경숙(1995)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아개념은 남아가 높다고 하였고, Cole, Martin, Peeke, Seroczynski, 그리고 Fier(1999)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갖는다고 하였다. Mboya(1999), 홍세희 등(2006)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성취적 자아개념은 남아가 높으나 그 외 영역에는 성차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신은영과 김누리(2004)의 연구에서는 여자의 자아개념이 남자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성별에 대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신체 및 성취 영역에서의 자아개념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나 그 외의 하위영역에서나 일반적 자아개념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들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자아개념발달양상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아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차 이외에도 청소년기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가정요인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되지만, 여전히 주요한 요인이 된다(Hartie, 1992). 청소년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와 부모양육행동이 있다. 특히 부모의 지지, 민주적 태도 등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혜진, 김경희, 염순교, 조주연, 함미영, 2005; 박재산, 문재우, 2006; 이사라, 박혜원, 2005; Harter, 1989; Hay & Ashman, 2003;).

청소년 자아개념의 또 다른 주요 변인은 또래관계이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래집단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한다(이상균, 2008; Kaplan, 1996; Retz, Dekovic, & Meijer, 2006; Thorne & Michaelieu, 1996).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26년 장기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한 이사라, 박성연과 황상민(2000)의 연구에서는 유치원(만6세), 초등학교 4학년(만10세), 고등학교 1학년(만16세) 등 각기 다른 시점에 측정된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 및 또래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인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 또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또래관계와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용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었다(오원정,

1999; 이사라, 오윤진, 2008; Bukowski & Hoza, 1989; McGuire, 1983; Vandell & Hember, 1994). 한국청소년패널자료인 중2, 중3, 고1 총 3년간의 종단자료를 이용한 홍세희 등(2006)의 연구에서도 자아개념변화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와 또래의 영향이 검증되었다.

환경적 요인 이외에 개인적 변인인 학업성취변인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취와 자아개념이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양명희, 2005; 이경화, 고진영, 2003; 이명애, 2006; Gumora & Arsenio, 2002; Marsh, 1990). 누적된 학업성취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에 대한 단기종단연구를 실시한 오정숙과 김혜숙(2004)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업성취가 청소년기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전 학업성취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던 집단의 자아개념이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부모 요인(사회경제적 변인, 부모자녀관계), 또래 요인(교우관계), 개인변인(사전 학업성취도)을 통제하고, 성별에 따른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청소년 자아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횡단연구였다. 종단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살펴본 몇몇 연구들도 청소년기 일부만의 발달적 경향만을 살펴보거나 분석방법의 한계로 인해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자아개념 변화양상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

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학업성취, 가정환경, 또래관계 등 주요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아개념의 발달을 살펴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자아개념을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다차원성을 강조하였다(이은주, 정익중, 2009; Swann, Chang-Schneider, & McClarity, 2007). 즉 자아개념은 사회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 학업자아개념 등 하위 영역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관련변수를 통제하고 성별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의 영역별 자아개념이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발달해 가는지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라 청소년기 자아개념의 각 하위영역들이 어떤 양상으로 발달해 가는지를 밝힘으로써 자아개념 변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우리나라 청소년 자아개념의 발달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아가 그들을 위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청소년기 사회자아개념은 어떠한 양상으로 발달해 가는가?

둘째, 성별에 따라 청소년기 가족자아개념은 어떠한 양상으로 발달해 가는가?

셋째, 성별에 따라 청소년기 신체자아개념은 어떠한 양상으로 발달해 가는가?

넷째, 성별에 따라 청소년기 학업자아개념은 어떠한 양상으로 발달해 가는가?

## 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 수집된 1~6차년도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5년부터 전국 150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 조사하는 교육관련 패널 조사이다. 따라서 1~3차년도 자료는 중학교 1~3학년 시기에 해당하며, 4~6차년도 자료는 고등학교 1~3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 2. 분석변수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발달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한 종속변수는 자아개념(사회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학업 자아개념)이다. 사회 자아개념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등과 같이 학생들의 사회성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가족 자아개념은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등과 같이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신체 자아개념은 ‘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

한다’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학업 자아개념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등과 같이 자신의 학업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성별은 여학생이 1, 남학생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여학생이 3,288명(47.6%), 남학생이 3,620명(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변수로 밝혀진 초등학교 6학년 사전 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SES) 변수, 부모-자녀관계, 교우관계로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사전성취도는 성취 수준을 9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직업,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을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점수로 전환하여 평균한 것이다. 직업 점수는 부의 직업을 Ganzeboom의 직업 지위 점수<sup>1)</sup>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Ganzeboom & Treiman, 2003),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교육 연한으로 변환하여 평균한 값으로 사용하였다. 소득 수준은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자연 로그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님은 내 기분을 이해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9개 직업 대분류 내 114개 직업 소분류에 따라 16~85점 범위로 점수화(예: 고위정부공무원 77점, 중·고등학교 교사 69점,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원 49점, 배달원 및 수하물 운반원 27점 등)하였음

표 1. 연구변인별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신뢰도<br>(Cronbach $\alpha$ ) |                |
|----------------|-------------------|------|------|--------|-----------------------------|----------------|
| 자아개념           | 사회                | 중1   | 6819 | 3.922  | .666                        | .838           |
|                |                   | 중2   | 6470 | 3.912  | .671                        | (5문항)          |
|                |                   | 중3   | 6559 | 3.903  | .656                        |                |
|                |                   | 고3   | 5333 | 3.920  | .649                        |                |
|                | 가족                | 중1   | 6814 | 3.952  | .806                        | .881           |
|                |                   | 중2   | 6470 | 3.775  | .809                        | (5문항)          |
|                |                   | 중3   | 6559 | 3.735  | .817                        |                |
|                |                   | 고3   | 5336 | 3.700  | .797                        |                |
|                | 신체                | 중1   | 6817 | 2.851  | .838                        | .836           |
|                |                   | 중2   | 6467 | 2.871  | .828                        | (5문항)          |
|                |                   | 중3   | 6560 | 2.964  | .828                        |                |
|                |                   | 고3   | 5335 | 3.087  | .759                        |                |
|                | 학업                | 중1   | 6815 | 3.279  | .780                        | .808           |
|                |                   | 중2   | 6467 | 3.147  | .788                        | (5문항)          |
|                |                   | 중3   | 6560 | 3.089  | .791                        |                |
|                |                   | 고3   | 5326 | 3.040  | .743                        |                |
| 독립변수           | 성별(여학생)           | 6908 | .476 | .499   | 여:1, 남:0                    |                |
| 통제변수<br>(학생특성) | 부모-<br>자녀관계       | 중1   | 6775 | 3.4916 | .616                        | .889<br>(10문항) |
|                |                   | 중1   | 6789 | 3.682  | .723                        | .831           |
|                | 교우관계              | 중2   | 6460 | 3.575  | .662                        | (4문항)          |
|                |                   | 중3   | 6555 | 3.616  | .645                        |                |
|                |                   | 고1   | 6282 | 3.802  | .626                        |                |
|                |                   | 고2   | 5734 | 3.785  | .629                        |                |
|                | 사전성취도(초6)         |      | 6646 | 5.963  | 1.880                       | 9간 척도          |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      | 6735 | .000   | 1.000                       | 합성변수           |

하면서 따뜻하게 대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

게 해 주신다' 등 부모님이 평소에 자녀를 대  
하는 태도나 행동에 관해 측정한 10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교우관계는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 사이가 좋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등과 같이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 3. 분석방법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역별 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2수준 다층성장모형(2-level hierarchical growth model)을 적용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추정하기 위해 적용한 성장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본 모형에서는 자아개념의 성장률의 추정하기 위해서 선형 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한 시간변수1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화되는 시기의 추가 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한 시간변수2를 포함하였다. 시간변수2를 추가로 포함한 이유는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발달양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만 15-16세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성장률의 비선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1수준(측정시점 수준) 모형

$$y_{ti} = \pi_{0i} + \pi_{1i}a_{1ti} + \pi_{2i}a_{2ti} + e_{ti} \quad e_{ti} \sim N(0, \sigma^2)$$

#### <계수의 의미>

$\pi_{0i}$  : i번째 학생의 자아개념 초기값(중1)

$\pi_{1i}$  : i번째 학생의 자아개념 선형 성장률

$\pi_{2i}$  : i번째 학생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

$a_{1ti}$  : 시간변수1(중1=0, 중2=1, 중3=2, 고3=5로 입력)

$a_{2ti}$  : 시간변수2(중1=0, 중2=0, 중3=0, 고3=1로 입력)

#### 2수준(학생 수준) 모형

$$\pi_{0i} = \beta_{00} + \beta_{01}\text{성별}_{1i} + \beta_{02}\text{사전성취도}_{2i} + \beta_{03}\text{SES}_{3i} \\ + \beta_{04}\text{부모자녀관계}_{4i} + \beta_{05}\text{교우관계}_{5i}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text{성별}_{1i} + \beta_{12}\text{사전성취도}_{2i} + \beta_{13}\text{SES}_{3i} \\ + \beta_{14}\text{부모자녀관계}_{4i} + \beta_{15}\text{교우관계}_{5i} + r_{1i}$$

$$\pi_{2i} = \beta_{20} + \beta_{21}\text{성별}_{1i} + \beta_{22}\text{사전성취도}_{2i} + \beta_{23}\text{SES}_{3i} \\ + \beta_{24}\text{부모자녀관계}_{4i} + \beta_{25}\text{교우관계}_{5i} + r_{2i} \\ r_i \sim N(0, T)$$

#### <계수의 의미>

$\beta_{00}$  :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초기값(중1) 평균

$\beta_{01} \sim \beta_{05}$  :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초기값(중1)에 대한 학생특성의 영향력 및 성별에 따른 차이

$\beta_{10}$  :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선형 성장률 평균

$\beta_{11} \sim \beta_{15}$  :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선형 성장률에 대한 학생특성의 영향력 및 성별에 따른 차이

$\beta_{20}$  : 전체 학생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 평균

$\beta_{21} \sim \beta_{25}$  : 전체 학생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에 대한 학생특성의 영향력 및 성별에 따른 차이

위의 성장모형식은 전체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적용한 모형이다.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할 때에는

위의 모형식에서 성별 변수를 제외한 성장모형식으로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발달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청소년 시기별(학년별)로 자아개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회 자아개념[중1:  $t=5.902$ , 중2:  $t=6.552$ , 중3:  $t=5.897$ , 고3:  $t=5.427$ ],  $p<.001$ ]과 신체 자아개념[중1:  $t=14.427$ , 중2:  $t=14.663$ , 중3:  $t=15.335$ , 고3:  $t=13.791$ ],  $p<.001$ ]은 각 학년별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 자아개념은 중학교 1학년 시기( $t=2.964$ ,  $p<.01$ )에, 학업 자아개념은 중학교 2학년 시기( $t=1.687$ ,  $p<.10$ )에만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t$ -검정결과는 학생특성의 영향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자아개념 원점수에 대한 성차를 보여준 결과이므로, 학생 배경특성의 영향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차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 자아개념 발달양상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 성별에 따른 사회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2는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 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성별의 구분없이 전체 청소년의 사회자아개념 성장의 발달양상을 보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사회자아개념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계수 $=-.011$ ,  $p<.05$ ).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계수 $=.047$ ,  $p<.05$ ). 성별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점인 초기값에서는 여학생의 사회자아개념이 남학생의 사회자아개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 $=.026$ ,  $p<.05$ ). 이후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성장률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의 추가성장률에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추가성장률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성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계수 $=-.118$ ,  $p<.01$ ). 좀 더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사회자아개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락을 보여준다(계수 $=-.012$ ,  $p<.10$ ).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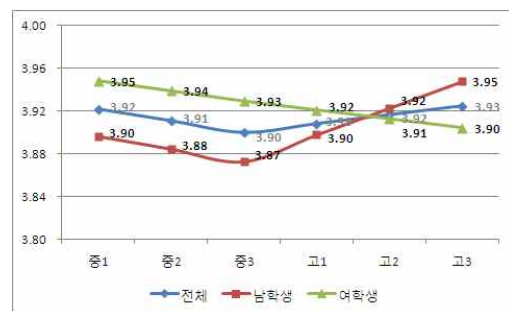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사회자아개념 성장곡선

표 2. 성별에 따른 사회 자아개념의 발달양상

| 고정 효과                        | 전체       |        | 남학생      |        | 여학생      |        |
|------------------------------|----------|--------|----------|--------|----------|--------|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 초기값(중1)                      |          |        |          |        |          |        |
| 초기값(중1) 평균                   | 3.922*** | (.006) | 3.897*** | (.009) | 3.948*** | (.009) |
| 성별(여학생)                      | .026*    | (.013) |          |        |          |        |
| 사전성취도(초6)                    | .018***  | (.004) | .023***  | (.005) | .013*    | (.005) |
| SES                          | .023***  | (.007) | .030**   | (.010) | .015 +   | (.009) |
| 부모-자녀 관계                     | .302***  | (.011) | .297***  | (.016) | .309***  | (.015) |
| 교우관계                         | .040***  | (.011) | .042*    | (.017) | .039**   | (.014) |
| 선형 성장률                       |          |        |          |        |          |        |
| 선형 성장률 평균                    | -.011*   | (.004) | -.012 +  | (.006) | -.010 +  | (.006) |
| 성별(여학생)                      | .007     | (.009) |          |        |          |        |
| 사전성취도(초6)                    | -.012*** | (.003) | -.012**  | (.004) | -.013*** | (.003) |
| SES                          | -.005    | (.005) | .000     | (.007) | -.010 +  | (.006) |
| 부모-자녀 관계                     | -.086*** | (.007) | -.078*** | (.010) | -.098*** | (.010) |
| 교우관계                         | .012     | (.008) | .023 +   | (.012) | .004     | (.010) |
|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br>전환되는 시기의 성장률 |          |        |          |        |          |        |
| 추가 성장률 평균                    | .047*    | (.019) | .099***  | (.028) | -.006    | (.025) |
| 성별(여학생)                      | -.118**  | (.037) |          |        |          |        |
| 사전성취도(초6)                    | .039**   | (.011) | .030 +   | (.017) | .046**   | (.015) |
| SES                          | .028     | (.020) | .031     | (.030) | .026     | (.026) |
| 부모-자녀 관계                     | .258***  | (.030) | .217***  | (.043) | .307***  | (.040) |
| 교우관계                         | -.035    | (.034) | -.056    | (.054) | -.017    | (.042) |
| 무선효과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 2수준 분산                       |          |        |          |        |          |        |
| 초기값(중1)                      | .146***  | (.382) | .151***  | (.388) | .141***  | (.376) |
| 선형 성장률                       | .017***  | (.131) | .018***  | (.132) | .017***  | (.129) |
| 추가 성장률                       | .257***  | (.507) | .302***  | (.550) | .209***  | (.457) |
| 1수준 분산                       |          |        |          |        |          |        |
|                              | .198     | (.445) | .224     | (.474) | .171     | (.413) |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에서는 정적인 추가성장률이 발견되었다(계수 = .099,  $p < .001$ ).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사회자아개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락을 보여주지만(계수 = -.010,  $p < .10$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의 추가성장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1은 표 2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 성별에 따른 사회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추정한 성장곡선이다.

전체 청소년의 사회자아개념 성장의 발달양상을 보면 중학교 3학년 시점까지 사회자아개념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점인 초기 값에서는 여학생의 사회자아개념이 남학생의 사회자아개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교 시기에 하락곡선을 보여주던 남학생의 사회자아개념이 중학교 3학년 이후 고등학교 시기에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보이며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남학생의 사회자아개념이 여학생보다 높아지게 된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는 달리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사회자아개념이 계속 낮아지는 하락곡선을 보여주었다.

## 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 자아개념 발달양상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 성별에 따른 가족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3은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 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성별의 구분없이 전체 청소년의 가족자아개념 성장의 발달양상을 보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가족자아개념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계수 = -.109,  $p < .001$ ).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계수 = .303,  $p < .001$ ). 성별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점인 가족자아개념의 초기 값에서는 남학생의 가족자아개념이 여학생의 가족자아개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 = -.084,  $p < .001$ ). 이후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성장률에 있어 성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하였다(계수 = .049,  $p < .001$ ).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의 추가성장률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성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계수 = -.143,  $p < .01$ ). 좀 더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가족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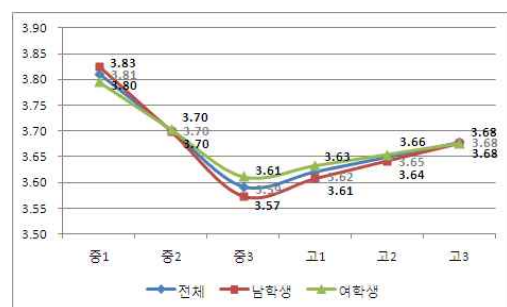


그림 2. 성별에 따른 가족자아개념 성장곡선

표 3. 성별에 따른 가족 자아개념의 발달양상

| 고정효과                         | 전체       |        | 남학생      |        | 여학생      |        |
|------------------------------|----------|--------|----------|--------|----------|--------|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 초기값(중1)                      |          |        |          |        |          |        |
| 초기값(중1) 평균                   | 3.811*** | (.007) | 3.826*** | (.010) | 3.796*** | (.010) |
| 성별(여학생)                      | -.084*** | (.015) |          |        |          |        |
| 사전성취도(초6)                    | .013**   | (.004) | .011+    | (.006) | .016**   | (.006) |
| SES                          | .030***  | (.008) | .025*    | (.011) | .035***  | (.011) |
| 부모-자녀 관계                     | .136***  | (.012) | .133***  | (.017) | .141***  | (.017) |
| 교우관계                         | .492***  | (.013) | .470***  | (.020) | .511***  | (.017) |
| 선형 성장률                       |          |        |          |        |          |        |
| 선형 성장률 평균                    | -.109*** | (.005) | -.126*** | (.007) | -.092*** | (.008) |
| 성별(여학생)                      | .049***  | (.011) |          |        |          |        |
| 사전성취도(초6)                    | -.003    | (.003) | -.005    | (.004) | -.001    | (.004) |
| SES                          | .002     | (.006) | -.002    | (.008) | .006     | (.008) |
| 부모-자녀 관계                     | -.043*** | (.008) | -.041*** | (.012) | -.047*** | (.012) |
| 교우관계                         | -.124*** | (.009) | -.115*** | (.014) | -.131*** | (.013) |
|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br>전환되는 시기의 성장률 |          |        |          |        |          |        |
| 추가 성장률 평균                    | .303***  | (.023) | .354***  | (.032) | .248***  | (.033) |
| 성별(여학생)                      | -.143**  | (.046) |          |        |          |        |
| 사전성취도(초6)                    | .014     | (.013) | .025     | (.018) | .002     | (.019) |
| SES                          | .008     | (.024) | .007     | (.034) | .007     | (.035) |
| 부모-자녀 관계                     | .142***  | (.035) | .133**   | (.049) | .156**   | (.051) |
| 교우관계                         | .295***  | (.041) | .306***  | (.061) | .285***  | (.056) |
| 무선효과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 2수준 분산                       |          |        |          |        |          |        |
| 초기값(중1)                      | .174***  | (.418) | .172***  | (.415) | .177***  | (.421) |
| 선형 성장률                       | .032***  | (.179) | .025***  | (.159) | .040***  | (.201) |
| 추가 성장률                       | .510***  | (.714) | .405***  | (.636) | .644***  | (.803) |
| 1수준 분산                       | .286     | (.535) | .299     | (.547) | .270     | (.519) |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년기 전반에 걸쳐 가족자아개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락을 보여준다(계수=-.126,  $p<.001$ ).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정적인 추가성장률이 발견되었다(계수=.354,  $p<.001$ ).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사회자아개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락을 보여주지만(계수=-.092,  $p<.001$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정적인 추가성장률이 발견되었다(계수=.248,  $p<.001$ ).

그림 2는 표 3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 성별에 따른 가족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추정한 성장곡선이다.

전체 청소년의 가족자아개념 성장의 발달양상을 보면 중학교 3학년 시점까지 가족자아개념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학교 시절에는 그 하락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은 사춘기의 가족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가족자아개념의 성장곡선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학교 1학년 시점인 초기값에서는 남학생의 가족자아개념이 여학생의 가족자아개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시절동안 남학생의 가족자아개념의 기울기가 여학생보다 더 크게 하락하여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가족자아개념이 더 낮아진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이후 고등학교 시기동안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보이며 고등학교

3학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개념 점수가 같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중학생 시절 가족자아개념 점수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가장 낮은 가족자아개념 점수를 보이고, 이후 고등학교 시기에는 점차 상승하는 곡선을 보여주었다.

### 3.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 자아개념 발달양상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 성별에 따른 신체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4는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성별의 구분없이 전체 청소년의 신체자아개념 성장의 발달양상을 보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신체자아개념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계수=.054,  $p<.001$ ).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성장은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점인 가족자아개념



그림 3. 성별에 따른 신체자아개념 성장곡선

표 4. 성별에 따른 신체 자아개념의 발달양상

| 고정효과                         | 전체       |        | 남학생      |        | 여학생      |        |
|------------------------------|----------|--------|----------|--------|----------|--------|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 초기값(중1)                      |          |        |          |        |          |        |
| 초기값(중1) 평균                   | 2.959*** | (.008) | 3.096*** | (.012) | 2.813*** | (.011) |
| 성별(여학생)                      | -.303*** | (.016) |          |        |          |        |
| 사전성취도(초6)                    | .031***  | (.005) | .030***  | (.007) | .032***  | (.007) |
| SES                          | .018*    | (.009) | .013     | (.012) | .022+    | (.012) |
| 부모-자녀 관계                     | .166***  | (.013) | .180***  | (.019) | .148***  | (.018) |
| 교우관계                         | .125***  | (.014) | .091***  | (.022) | .155***  | (.019) |
| 선형 성장률                       |          |        |          |        |          |        |
| 선형 성장률 평균                    | .054***  | (.005) | .058***  | (.007) | .050***  | (.007) |
| 성별(여학생)                      | -.003    | (.011) |          |        |          |        |
| 사전성취도(초6)                    | -.007*   | (.003) | -.010*   | (.004) | -.005    | (.004) |
| SES                          | .006     | (.005) | .005     | (.008) | .007     | (.007) |
| 부모-자녀 관계                     | -.033*** | (.009) | -.027*   | (.011) | -.041**  | (.013) |
| 교우관계                         | -.029**  | (.009) | -.018    | (.014) | -.036**  | (.013) |
|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br>전환되는 시기의 성장률 |          |        |          |        |          |        |
| 추가 성장률 평균                    | -.022    | (.022) | -.042    | (.032) | .000     | (.030) |
| 성별(여학생)                      | .024     | (.044) |          |        |          |        |
| 사전성취도(초6)                    | .017     | (.013) | .024     | (.018) | .009     | (.018) |
| SES                          | -.016    | (.023) | -.015    | (.034) | -.016    | (.031) |
| 부모-자녀 관계                     | .092**   | (.035) | .066     | (.047) | .123*    | (.053) |
| 교우관계                         | .116**   | (.039) | .109+    | (.059) | .118*    | (.053) |
| 무선효과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 2수준 분산                       |          |        |          |        |          |        |
| 초기값(중1)                      | .264***  | (.514) | .273***  | (.523) | .254***  | (.504) |
| 선형 성장률                       | .038***  | (.195) | .027***  | (.163) | .050***  | (.225) |
| 추가 성장률                       | .424***  | (.651) | .297***  | (.545) | .561***  | (.749) |
| 1수준 분산                       | .270     | (.519) | .303     | (.550) | .234     | (.484) |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의 초기 값에서는 남학생의 신체자아개념이 여학생의 신체자아개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 $=-.303$ ,  $p<.001$ ). 이후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성장률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의 추가성장률에 있어서의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신체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신체자아개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을 보여주었다(계수 $=.058$ ,  $p<.001$ ).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추가성장률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신체자아개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을 보여주었다(계수 $=.050$ ,  $p<.001$ ).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추가성장률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3은 표 4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 성별에 따른 신체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추정한 성장곡선이다.

전체 청소년의 신체자아개념 성장의 발달양상을 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낮은 신체자아개념 점수를 보이고 이후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성장곡선을 보여준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낮은 신체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고등학교 시기로 가면서 점차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중학교 1학년 시점인 초기값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점까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남학생의 신체자아개념이 여학생의 신체자아개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장곡선의 전반

적인 발달양상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청소년기 시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유사한 모습의 상승곡선을 보여주었다.

#### 4.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 자아개념 발달양상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 성별에 따른 학업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5는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성별의 구분없이 전체 청소년의 학업자아개념 성장의 발달양상을 보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학업자아개념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계수 $=-.098$ ,  $p<.001$ ).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계수 $=.246$ ,  $p<.001$ ). 성별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점인 학업자아개념의 초기 값에서는 남학생의 학업자아개념이 여학생의 학업자아개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 $=-.030$ ,  $p<.05$ ). 이후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성장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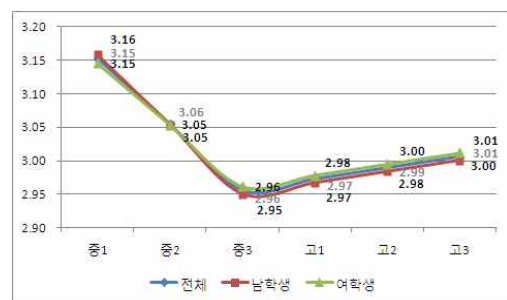


그림 4. 성별에 따른 학업자아개념 성장곡선

표 5. 성별에 따른 학업 자아개념의 발달양상

| 고정 효과                        | 전체       |        | 남학생      |        | 여학생      |        |
|------------------------------|----------|--------|----------|--------|----------|--------|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 초기값(중1)                      |          |        |          |        |          |        |
| 초기값(중1) 평균                   | 3.153*** | (.007) | 3.158*** | (.010) | 3.146*** | (.010) |
| 성별(여학생)                      | -.030*   | (.015) |          |        |          |        |
| 사전성취도(초6)                    | .076***  | (.004) | .069***  | (.006) | .083***  | (.006) |
| SES                          | .043***  | (.008) | .038***  | (.011) | .049***  | (.011) |
| 부모-자녀 관계                     | .187***  | (.012) | .189***  | (.017) | .186***  | (.017) |
| 교우관계                         | .154***  | (.013) | .140***  | (.019) | .166***  | (.017) |
| 선형 성장률                       |          |        |          |        |          |        |
| 선형 성장률 평균                    | -.098*** | (.005) | -.104*** | (.007) | -.092*** | (.007) |
| 성별(여학생)                      | .020*    | (.010) |          |        |          |        |
| 사전성취도(초6)                    | -.010**  | (.003) | -.009*   | (.004) | -.010*   | (.004) |
| SES                          | .001     | (.006) | .011     | (.008) | -.010    | (.008) |
| 부모-자녀 관계                     | -.085*** | (.008) | -.084*** | (.012) | -.086*** | (.012) |
| 교우관계                         | -.027**  | (.009) | -.027+   | (.014) | -.028*   | (.013) |
|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br>전환되는 시기의 성장률 |          |        |          |        |          |        |
| 추가 성장률 평균                    | .246***  | (.023) | .258***  | (.033) | .234***  | (.031) |
| 성별(여학생)                      | -.053    | (.046) |          |        |          |        |
| 사전성취도(초6)                    | .011     | (.013) | .016     | (.019) | .005     | (.019) |
| SES                          | -.050*   | (.025) | -.091*   | (.036) | -.007    | (.034) |
| 부모-자녀 관계                     | .232***  | (.037) | .226***  | (.052) | .242***  | (.052) |
| 교우관계                         | .090*    | (.041) | .099     | (.062) | .081     | (.053) |
| 무선효과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분산       | 표준편차   |
| 2수준 분산                       |          |        |          |        |          |        |
| 초기값(중1)                      | .186***  | (.431) | .186***  | (.432) | .186***  | (.432) |
| 선형 성장률                       | .032***  | (.178) | .027***  | (.163) | .038***  | (.195) |
| 추가 성장률                       | .566***  | (.752) | .492***  | (.701) | .674***  | (.821) |
| 1수준 분산                       | .272     | (.521) | .307     | (.554) | .233     | (.483) |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있어 성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하였다(계수=.020,  $p<.05$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의 추가성장률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성장이 발견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학업자아개념의 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학업자아개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락을 보여준다(계수=-.104,  $p<.001$ ).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정적인 추가성장률이 발견되었다(계수=.258,  $p<.001$ ).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학업자아개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락을 보여주지만(계수=-.092,  $p<.001$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정적인 추가성장률이 발견되었다(계수=.234,  $p<.001$ ).

그림 4는 표 5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 성별에 따른 학업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추정한 성장곡선이다.

전체 청소년의 학업자아개념 성장의 발달양상을 보면 중학교 3학년 시점까지 학업자아개념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학업자아개념의 성장곡선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중학생 시절 학업자아개념 점수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가장 낮은 학업자아개념 점수를 보이고, 이후 고등학교

시기에는 점차 완만하게 상승하는 성장곡선을 보여주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기 자아개념이 영역별로 어떤 양상으로 발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단연구자료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양상을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은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학교 시기의 자아개념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이후 고등학교 시기인 청소년 후기에 이르러 이를 회복하며 안정된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성별에 따라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은 영역별로 다른 발달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먼저, 본 연구 결과, 청소년기 영역별 자아개념의 발달에 있어 공통적인 발달양상이 발견되었다. 영역별 자아개념 모두 중학교 3학년 시점까지 급격한 변화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기 자아개념은 일시적 퇴행현상을 보이며(이사라, 박혜원, 2005; 이진화, 전경숙, 1995; 최정미, 김미란, 2003; Mendelson, & White, 1985), 15-16세 전후로 큰 혼돈을 겪다가 이후 청소년기 후기에 접어들며 점차 안정된 자아개념을 형

성하게 된다고 한 선행연구(정익중, 2007; 홍세희 등, 2006; Robert, 1995)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청소년 초기에 불안정하던 자아개념이 16세 이후 안정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종승 남덕진, 2002; 정익중, 2007; 홍세희 등, 2006)의 결과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청소년기에 자아개념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동요가 심한 것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일관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중학교 진학과 함께 새로운 환경적 변화는 그들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초기 청소년기에 나타난 낮은 자아개념은 부적응 및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고, 이러한 행동은 다시 낮은 자아개념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아개념의 발달양상을 이해하고, 낮은 자아개념이 심리적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면,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영역별 발달양상에는 성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자아개념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발달을 보이거나 고3시점까지 명확한 안정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성별에 따른 사회자아개념의 성장률에는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 중학교 1학년 시점인 초기값에서는 여학생의 사회자아개념이 남학생의 사회자아개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교 시기에 하락곡선을 보여주던 남학생의 사회자아개념은 중학교 3학년 이

후 고등학교 시기에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보이며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남학생의 사회자아개념이 여학생보다 높아지게 된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는 달리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사회자아개념이 계속 낮아지는 하락곡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성취적 자아개념은 남아가 높으나 그 외 영역에는 성차가 없다고 한 Mboya(1999), 홍세희 등(2006)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 청소년기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개념이 더 감소한다는 Kling, Hyde, Showers 및 Buswell(1999)과 Major, Barr, Zubeck 및 Babey(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적 매력, 이성교제, 학업성취, 그리고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 등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 여학생의 자아개념이 더 많이 저하된다는 선행연구결과(Simmons & Biyth, 1987; Simmons & Rosenberg, 1975)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 및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기대에 의한 상호작용적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남자는 성취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며 사회에서도 이러한 역할기대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반면 여성은 관계지향적이며 사회에서도 이러한 성역할 및 역할기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접근을 지양하고 그들의 발달적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자아개념의 발달적 양상의 성차가 적응이나 진로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족자아개념은 중학교 3학년 시점까지 가족자아개념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완만한 성장을 보인다. 특히 중학교 시절에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은 사춘기의 가족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춘기 시기가 부모-자녀관계의 갈등이 가장 고조되다가(Weng & Montemayor, 1997), 청소년 중기에 안정되다가 후기에 감소한다(Laursen & Ferreira, 1994)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가족자아개념의 성장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가족자아개념의 성장곡선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자아개념 이외에는 성차가 없다고 한 Mboya(1999), 홍세희 등(2006)의 선행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시기에 부모자녀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고조될 수 있음을 부모가 인식하고,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와 청소년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향후 청소년이 학교 및 사회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적응 및 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의 토대 확립을 위해 부모는 사회적 지지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자아개념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본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자아개념이 더 높으며, 성별에 상관없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신체자아개념 점수가 상승하

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기 시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변화하는 외모에 더 관심이 많고, 자신의 변화하는 신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다(Crawford & Unger, 2000; Santrock, 2004)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신체자아개념을 보인다는 이진화와 진경숙(1995), Cole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청소년기 신체자아개념에 성차가 없다는 Mboya(1999), 홍세희 등(2006)의 선행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신체자아개념이 다른 자아개념 영역과 달리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낮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이 점차 빨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춘기가 점차 빨라지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2차 성징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급격한 신체의 변화는 낮은 신체자아개념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신체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올바른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기 동안 계속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더 낮은 신체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발달양상을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자아개념은 중학교 3학년 시점까지 학업자아개념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완만한 성장을 한다. 성차에 따른 성장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학업자

아개념의 성장곡선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한다. 중학생 시기에 학업자아개념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여건 상 중학교 시절부터 많은 시험과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자아개념이 높다고 보고한 Mboya(1999), 홍세희 등(2006), 신은영과 김누리(200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중학교 시기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안타까운 우리교육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완충시켜줄 수 있는 교과 외 활동이나 정 의적 측면의 경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낮은 학업 자아개념이 고착될 경우, 이후 학업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습된 무기력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초기에 학업에 있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나 부모가 지나친 압박이나 기대를 주지 않도록 하고, 실패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개념(사회, 가족, 신체, 학업)은 중학교 시기에는 큰 변화를 보이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발달을 보이며 안정된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하지만 고3시점에서 명확한 안정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반면,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영역별 발달양상에는 성장에 차이가 있다. 둘째, 가족자아개념은 중학교 3학년 시점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완만한 성장을 보인다. 성별에 따른 가족자아개념의 성장률

차이는 없다. 셋째, 신체자아개념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신체자아개념이 더 높았으며, 성장률에는 차이가 없다. 넷째, 학업자아개념은 중학교 3학년 시점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완만한 성장을 보인다. 성별에 따른 성장률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학업자아개념의 성장곡선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발달양상을 분석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많았으나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국내 연구실정에서,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발달양상의 차이를 통해 남녀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아개념 변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데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을 위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양상을 살펴보는데 있어 아동기와 성인기의 정보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라 자아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본 연구대상의 성인기 시점에서 자아개념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성별 이외에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 또래변인 등 환경적 관련변

인들을 주요변수로 한 연구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변수들을 통제하였다. 하지만 통제변수들도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설정되었던 변수들을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들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향후 연구를 통해 환경적 변인의 영향에 따라 자아개념 성장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부모, 또래 등 청소년의 주요타인의 역할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은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을 띠고 불안정하며, 특히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시절에 자아개념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적 활동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들을 고려하고, 자아개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사회적 여건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넷째,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뿐 아니라 대인관계, 행복감 등 종속변인을 다양화하여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양상을 보다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의 종단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데서 나아가 개인별 변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질적 집단을 찾는 연구들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차별적 발달양상을 보이는 집단에 대한 자아개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혜진, 김경희, 염순교, 조주연, 함미영 (2005). 남자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양상과 성역할 정체성 관계. *청소년학연구*, 12(4), 19-58.
- 박재산, 문재우 (2006).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 내 갈등과 건강보호행동으로서의 자아개념, 학업적응간의 인과관계분석. *건강증진학회*, 23(2), 91-107.
- 신은영, 김누리 (2004). 청소년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탐색.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13(2), 185-199.
- 양명희 (2005).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관련 심리적 특성 탐색: 자기조절학습수준과 자아개념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35-262.
- 오원정 (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정숙, 김혜숙 (2004).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 *초등상담연구* 3(1), 247-270.
- 이경화, 고진영 (2003).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2(2), 29-47.
- 이명애 (2006). 자아개념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탐색. *교육평가연구*, 19(1), 161-181.
- 이사라, 박성연, 황상민 (2000).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된 자아개념 발달에 대한 26년 장기종단연구. 2000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201.

- 이사라, 박혜원 (2005). 부모, 또래,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 및 청소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5), 163-181.
- 이사라, 오윤진 (2008).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가 청소년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9), 1-11.
- 이상균 (2008). 청소년 비행행동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39, 315-342.
- 이숙정 (2010).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에 관한 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3), 165-187.
- 이은주, 정익중 (2009). 청소년 비행과 일탈적 자아개념의 상호적 인과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2), 191-221.
- 이종승, 남덕진 (2002). 자아개념의 안정성에 관한 종단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6(2), 133-151.
- 이진화, 전경숙 (1995).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5.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최정미, 김미란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에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 Baldwin, S. A., & Hoffmann, J. P. (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 101-113.
- Block, J., & Robins, R. W. (1993). A longitudinal study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self-esteem from early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4, 909-923.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15-45). New York: Wiley.
- Chubb N. H., Fertman, C. I., Ross, J. L. (1997). Adolescent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dolescence*, 32, 113-129.
- Cole, D. A., Martin, J. M., Peeke, L. A., Seroczynski, A. D., & Fier, J. (1999). Children's over and underestimation of academic competence: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depression, anxiety. *Child Development*, 70, 459-473.
- Crawford, M., & Unger, R. (2000). *Women and gender*(3rd ed.). New York: McGrawHill.
- Ganzeboom, H. B. G., & Treiman, D. J. (2003). Three Internationally Standardised Measures for Comparative Research on Occupational Status. In C. Wolf (Ed.), *Advances in cross-national comparison; A European working book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New

- York.: Kluwer Academic Publishers.
- Gumora, G., & Arsenio, W. F. (2002).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performance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5), 395-413.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Harter, S. (1989). Cause, correlate, and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 Sternberg(eds.), *Perception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ttie, J. A. (1992). *Self-concept*. Hillsdale, NJ: Erlbaum.
- Hay, I. & Ashman, A. F. (2003).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otional stability and general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parents, peers,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50*(1), 77-91.
- Kaplan, H. B. (1996). Psychosocial stres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theory. In H. B. Kaplan (Ed), *Psychosocial stress: Perspectives on structure, theory, life-course, and method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Kling, K. C., Hyde, J. S., Showers C. J., & Buswell, B. N. (1999).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0-500.
- Laursen, B., & Ferreira, M. (1994). *Dose parent-child conflict peak at mid-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meeting of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 Major, B., Barr, L., Zubeck, J., & Babey, S. H. (1999). Gender and self-esteem: A meta-analysis. In W. Swann & J. Langlois (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The gender science of Janet Taylor Sp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rsh, H. W. (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of self-concept: Theoretical and empirical justifi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 77-172.
- Mboya, M. M. (1999). Multiple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concept: relations with age, gender and scholastic measur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0*(4), 388-398.
- McGuire, W. J. (1983). A contextualist theory of knowledge: Its implications for innovations and reform in psychological research. In L. Berkob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47, New York: Academic Press.
- Mendelson, B. K., & White, D. R. (1985). Development of self body esteem in overweight youngs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47.
- Offer, D., Ostrove, E., & Howard, K. I. (1981). *The adolescent: A psychological self-portrait*. New York: Basic Books.
- Reitz, E., Dekobic, M., & Meijer, A. M. (2006).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as

- moderator and predictor. *Journal of Adolescence*, 29, 419-436.
  - Robert, L, Leachy. (1995). 자아의 발달. 김기정 (역). 서울: 문음사. (원본 발간일, 1985).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of self*. New York: Basic.
  - Santrock, J. W. (1986). *Life-span development*. Brown Publisher, Dubugue, LA.
  - Santrock. J. W. (2004). *Child development: An Introduction(10th ed.)*. New York: McGraw-Hill.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elmont, CA, USA: Wadworth/ Thomson Learning.
  - Simmons, R. G., & Biyth, D. A. (198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Hawthorne, New York: Aldine & de Gruyter.
  - Simmons, R. G., & Rosenberg, F. (1975). Sex, sex roles and self-im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 229-258.
  - Swann Jr., W. B., Chang-Schneider, C., & McClarity, K. L. (2007). Do people's self-views matter? *American Psychologist*, 62(2), 84-94.
  - Thorne, A. & Michaelieu, Q. (1996). Situating adolescent gender and self-esteem with personal memories. *Child Development*, 671, 1374-1390.
  - Vandell, D. L., & Hember,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 Weng, A., & Montemayor, R. (1997). *Conflict between mothers and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meeting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1차원고접수 : 2012. 1. 3

수정원고접수 : 2012. 2. 17

최종게재결정 : 2012. 3. 2

##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in Adolescence according to Gender

Song, Soo Ji

Dept. Christian Education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Namgung, Jee Yeong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Kim, Jung Min

Dept. Educatio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in adolescence according to gender. Using data harvested from the 1st-6th years taken from the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undertaken by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sample consisted of 6,908 adolescen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Multi-level analysis using a growth model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in adolescence according to gen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in adolescence changed and underwent linear change in particular during the middle school years. Additionall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growth rates of the self-concept according to gender.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growth rates in terms of social self-concept according to gender. Second, there were no apparent differences in the growth rates of the family self-concept according to gender. Thir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growth rates in terms of physical self-concept according to gender. Fourth,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growth rates of academic self-concept according to gender.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development of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family self-concept, physical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gender, multi level models*